

# “봄 나들이, 강진군이 딱”

### 제1회 강진 군동금곡사 벚꽃길 나들이’ 행사 오는 7일부터 이틀간...일부 차량 통행 제한



강진 군동 금곡사 벚꽃길 삼십리 길이 상춘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봄의 전도사인 벚꽃이 화려하게 만발하는 따스한 봄을 맞아 제1회 강진 군동금곡사 벚꽃길 나들이 행사가 4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군동 금곡사 일원에서 개최한다.

오는 4월 7일 군동 금곡사 벚꽃 삼십리길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금곡사 주행사장에서 개막식 식전행사로 풍물패 길놀이와 난타 공연을 실시한다.

11시 개막식 후 ‘사랑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를 부른 초청가수 하동진이 개막식 축하 콘서트를 개최한다.

오후 6시에는 아이돌 트로트 가수 ‘레이디더’ 공연과 강진예술인이 펼치는 음악여행이 관광객을 기다린다.

부대행사로 가족과 연인, 친구가 함께하는 벚꽃길 느리게 걸기,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는 행사로 나만의 화진 부치기 시연 및 체험, 아이들에게 어머니 품 같은 고향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군동 외갓집 체험과 직접 재배한 콩을 발효한 군동 된장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금곡사 일원에서 하는 벚꽃길 보물찾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페이스페인팅, 전문MC와 함께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 벚꽃의 풍경

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새마을부녀회들이 운영하는 먹거리촌에서 봄 향기 가득한 봄나물과 함께 입맛 돋우는 비빔밥과 청정지역인 강진에서 생산한 돼지 수육, 목은지와 두부를 곁들 강진삼합을 맛볼 수 있는 색다른 음식점을 운영한다.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행사장 주변 환경정리 및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 관광객들이 가족들과 소풍 나온 기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깔의 파라솔 설치, 멋진 경관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곳곳에 설치했다.

금곡사 주변 바위와 벚꽃 나무가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이번 강진 군동 금곡사 벚꽃길 나들이 행사기간인 4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4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벚꽃길을 걷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군동면 호계리 문화가든에서 작전면 중당삼거리까지 차량 통행 제한을 한다.

차량 통행 제한에 따른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종합운동장→문화가든→임시주차장→주행사장→생명과학고 목장→작전면 중당삼거리→동물위생사업소까지 셔틀버스 6대를 매 20분마다 배차 운영할 예정이다.

행사장 주변 차량 통제로 인해 작전면→군동면 화방마을→강진읍 방면으로 차량을 우회도로로 운행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진=김명일 기자

# “다 같이 돌아 동네한바퀴”

### 곡성군 1기 굿모닝워킹(Good morning walking) 수료식



곡성군 보건의료원(원장 김영락)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운영한 “굿모닝워킹(Good morning walking) 프로그램”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1기 운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추운 겨울에 운동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투자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걸기를 희망하는 주민으로부터 큰 인기를 모았다.

주 3회, 3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잠미공원, 충의공원, 죽동공원, 삼인동 약수터 길 등 곡성의 아름다운 길을 걸으며 봄과 마음의 건

강을 지켰으며, 1기 운영 마지막 날 수료식을 개최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 주민 6명에게 건강상, 행복상, 성실상 등 상장과 상품을 수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주민은 “두통, 요통, 관절통이 심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웃들과 함께 걸기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단잠을 자고 일어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보건의료원의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김영락 보건의료원장은 “1톤에 생각보다 1그램의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일상생활에서 걸기를 꾸준히 실천해서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기 굿모닝워킹 프로그램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보건과 건강증진팀(☎061-360-7573)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광휘 기자

# 목포 수군문화축제서 427년만에 노적봉 재현

###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일본군 물리친 충무공 지혜 재연출 당시 일화 1954년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



목포 유달산 앞에 위치한 영산강의 길목인 목포 앞바다를 내려다보는 곳에 위치한 노적봉. 노적봉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곡식을 쌓아둔 것처럼 위장해 일본군을 물리친 역사적 장소이다.

목포시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을 물리친 지혜를 421년만에 재연출한다.

목포시는 오는 7~8일 유달산 노적봉과 원도심 일원에서 ‘목포 이순신 수군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 해로 두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프로그램은 이순신 장군의 지혜를 선보이는 1597 노적봉 재현이다.

명량대첩 후 왜군이 유달산 앞바

다에서 조선 수군을 정탐할 때 이순신 장군은 노적봉에 벚짚을 쌓아 군량미가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게 하는 위장술을 펼치고, 주민들은 강강술래를 통해 병력이 많게끔 보였다.

목포시는 이 같은 역사를 소대로 수군문화축제에서 노적봉 전제를 벚짚으로 쌓아 1597년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는 한편 목포시립예술단의 춤과 노래, 연극으로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릴 예정이다.

노적(露積)이란 ‘한꺼번에 많은 곡식을 거두어 마당이나 넓은 터에 쌓아두는 곡식단’이란 뜻으로 노적봉(露積峯)은 유달산 앞에 위치해 영산강의 길목인 목포 앞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다.

조선 수군은 정유재란 당시 13척의 배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 명량대첩에서 승리한 뒤 목포 앞바

# 영암군, 2019년 고구마 조직배양 무병묘 신청

### 8만본 이상 농가 공급 목표로 홍보에 나서



영암군은 지역 특화작목인 고구마 1월~3월(춘기) 80,000본 이

상의 안정적 생산과 재배능력의 소득증대를 위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금년 하반기 공급할 바이러스 무병묘 분양 신청을 받고 있다.

영암군은 바이러스가 없는 생장점을 조직배양하여 고구마 무병묘를 만들어 9월~11월(춘기), 이

상 공급을 목표로 사업홍보에 나섰다.

조직배양묘는 일반묘에 비해 바이러스 재감염률은 5%이하로 낮고 수량 및 상품화율은 20%이상 증가되므로 고구마 재배농가 선호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종자의 연용은 바이러스 재감염으로 인해 수량감소 및 상품성 하락과 직결되므로 조직배양묘 공급은 농가의 무균 종자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드시 3년 1기 종자갱신으로 영암고구마 이미지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